

1. 대인관계 폭이 넓을수록, 민감하고 감각적일수록, 변화를 추구하며 진취적일수록 나무를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
2. 창의적일수록, 의심이 많을수록, 대인기피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할수록, 현실감이 떨어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나무를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
3. 자신감이 클수록 동물(다람쥐, 새 등)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4. 우호적이고 대인관계에 적극적일수록, 주의 산만하고 충동적일수록, 심약할수록, 미적 감각이 높을수록, 진취적일수록 나뭇잎(수관)에 열매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
5.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호기심이 많을수록, 또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클수록 나뭇잎(수관)에 열매를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6. 원기 왕성할수록 나뭇잎(수관)에 꽃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7. 야심 있고 목표지향적일수록 가지를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8. 계획성이 높고 주의 깊은 성향일수록 가지를 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9. 그림의 위치가 위쪽에 있으면 자신의 존재가 불확실하며,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서 벗어나,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하려는 것을 나타냄. 혹은 낙천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10. 그림 위치가 아래에 있는 것은 자신이 현실적으로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패배감, 불안감, 위화감을 가지고 그 때문에 우울한 기분에 빠져있거나 구체적인 것에 몸을 의지해 안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이다.
11. 그림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거나 너무 작은 그림을 왼쪽이나 오른쪽 위에 그리는 것은 부적응을 의미한다.
12. 전체 공간에 비해 그림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일반적으로 부적절감을 나타낸다.
13. 공간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거나, 크기 때문에 종이의 절단면에서 그림이 잘려나간다면 환경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14. 그림이 왼쪽 가장자리에 있을 경우 미래로 도피하고 싶은 바람을 나타낸다.
15. 종이의 양쪽 끝쪽에 가깝게 그림을 그릴수록 불안전감과 위축을 의미한다.
16. 아래쪽 끝쪽에 가깝게 그림을 그릴수록 우울 의미한다.